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치안정책연구'의 연구경향 및 시사점

Research Trends and Implications of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by Using Text Network Analysis

윤병훈* · 성용은**

차례

- | | |
|------------|------------|
| I. 서론 | IV. 분석결과 |
| II. 이론적 논의 | V. 결론 및 제언 |
| III. 조사설계 | |

● 국 문 요 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치안정책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의 핵심 주제어를 바탕으로 관련 주제어간 관계성을 분석하여 치안정책연구의 최근 연구경향을 살펴보고, 향후 치안정책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09년부터 2017년 제31권 제1호(2017년 3월 발행)까지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행된 치안정책연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치안정책연구의 연구경향은 첫째, 연구주제의 빈도분석 결과, '경찰', 'CPTED', '경찰공무원', '북한', '수사'라는 연구주제어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둘째, 연구주제어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경찰'을 중심으로 연결중심성은 '범죄', '수사', '북한', '인권', '보안경찰', '경찰활동', '인권침해', '통일', '범죄예방' 등이 주요 연구주제어가 도출

되었다. 셋째, 연구주제어 중 연결중심성이 높은 연구주제어는 '범죄', '수사', '북한'이라는 연구주제어가 각각 총 32개의 연구주제어 중 약 2개의 연구주제어와 관계성을 보여주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치안정책연구의 연구경향은 향후 사이버안전, 테러, 외사, 경무 기획, 정보화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치안정책 연구로 확대 및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변하는 치안환경의 변화를 대변할 수 있는 주요한 키워드(예, 사이버테러, 제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신종 사이버범죄 등)의 연구주제로 더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이는 우리나라 경찰의 치안정책 개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학술적·정책적 의의와 함께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경동대학교 경찰학과 조교수, 주저자.

** 극동대학교 산업보안학과/경찰행정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 주제어 : 연구경향, 사회 네트워크 분석,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I. 서론

치안은 국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급변하는 치안환경에서 경찰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치안역량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고민과 노력이 요구된다.¹⁾ 이러한 요구에 따라 경찰은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명확한 역할을 정립하여 적절한 치안활동을 수행해야 한다.²⁾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은 과학기술을 경찰활동에 적극 도입·활용하고 있으며, 치안시스템의 정비나 과학수사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치안정책의 중장기적 연구기능의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³⁾ 이러한 배경 하에 국내 치안정책의 연구경향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경찰의 치안역량 강화에 있어서 중요하다.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정책을 수립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은 바로 치안정책연구소이다. 치안정책연구소는 경찰의 치안역량 강화와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문적·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치안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경찰대학설치법」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관련 규정을 토대로 1980년 8월에 경찰대학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다.⁴⁾ 이와 같은 설립목적과 이념에 비추볼 때,

- 1) 성용은·윤병훈, “한국의 초국가적 범죄위협과 정보주도형 경찰활동(Intelligence-Led Policing)의 역할”, 한국범죄정보연구, 제1권 제2호, 2015, 19쪽.
- 2) 윤병훈·이창한,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경찰활동의 모색: SMART Policing의 활용사례 및 적용방안”, 경찰학논총, 제8권, 제2호, 2013, 415쪽.
- 3) 권창국·김연수, “경찰활동과 과학기술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찰 R&D기관 도입을 위한 환경분석”, 한국경찰학회보, 제15권, 제1호, 2013, 5쪽.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간되는 치안정책연구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는 것은 최근 우리나라의 치안정책의 이슈와 향후 우리나라 경찰 조직의 정책변화 경향을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급변하는 치안환경 속에서 추후 경찰의 치안역량 강화와 경찰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연구경향을 분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은 내용분석⁵⁾의 계량적 분석 방법인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 있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⁶⁾은 인용문헌 네트워크나 공저 네트워크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정립된 연구방법론이다.⁷⁾ 치안정책연구의 연구경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인용문헌 또는 저자간 공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치안 관련 연구분야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치안정책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주제어(keyword)를 추출하여 중심성이 높은 단어들을 중심으로 연결된 주제어들 간의 네트워크(관계)를 시각화 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치안정책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의 연구경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치안정책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의 핵심 주

4)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http://www.psi.go.kr>/2017. 7. 20. 검색)

5) 내용분석은 글이나 말, 그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텍스트)으로부터 메시지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추출해내는 분석기법을 의미한다(김준현,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결과 해석에 관한 소고: 행정학 분야 연구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4호, 2015, 249쪽).

6)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ext network analysis)과 관련하여 분석방법은 동일하나 그 명칭이 다양하게 사용된다. 특히, 국내 학술연구에서도 언어 네트워크 분석과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는 Paranyushkin(2010; 2011)가 제시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명칭이 사용된다(박치성·정지원, 2013: 77쪽 재인용). 이 연구에서도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였다.

7) 고득환·박세훈,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NA)을 통한 한국 비교교육 연구경향 분석”, 교육종합연구, 제15권, 제1호, 2017, 132쪽.

제어를 바탕으로 관련 주제어간 관계성을 분석하여 치안정책연구의 최근 연구경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치안정책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으로 그 목적으로 하였다.

II. 이론적 논의

1.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사회 네트워크 분석방법⁸⁾을 내용분석 및 문헌연구 분야에 적용한 방법으로, 텍스트에 자주 출현하는 주요 단어를 제시하고 그 외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네트워크화하여 해석하는 분석기법이다.⁹⁾ 네트워크는 특정 대상 간 연결 관계를 노드(node)와 링크(link)로 표현하는 것이며, 특정 학문에서 인용색인(citation index)을 기반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를 순수 텍스트 혹은 텍스트 네트워크라고 한다. 즉,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단어의 공출현 빈도와 패턴에 대한 정보를 네트워크로 표시하여 주요 핵심 단어를 파악하거나 핵심 단어의 위치를 분석하는 방법이다.¹⁰⁾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 연구경향에 주로 활용되는 이유는 첫째,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주요 단

8) 사회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여러 관계에 의해 연계되어 있는 행위주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를 의미하며(Knoke & Yang, 2008), 행위 주체간의 관계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계량화하여 도출된 현상을 해석하는 분석방법이다(최자은, 2012: 67쪽)

9) 김준현, 앞의 논문, 251쪽.

10) 고득환·박세훈, 앞의 논문, 131쪽.

어 간 관계를 시각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끝으로 자주 빈출되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영향력을 통해 연구자의 의도 및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¹¹⁾ 이에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문(예, 행정학, 언론학, 관광학 등)분야에서는 관련 연구분야의 연구경향을 계량화하고 이를 통해 특정 학문분야의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치안정책 관련 학문 분야, 즉, 경찰, 범죄, 테러 등의 연구분야에서도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구경향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시사하는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다.

2. 선행연구의 검토

1) 경찰 및 범죄 관련 연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경찰 관련 분야의 연구경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최응렬과 동료들(2013)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논문의 주제어를 바탕으로 경찰학과 범죄학의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경찰학 전공의 연구경향은 경찰정책의 예방·대응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영향성, 그리고 경찰정책 인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학 전공의 연구경향은 청소년 비행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범죄 두려움과 범죄피해, 그리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연구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하였다.¹²⁾ 이대성(2014)은 해양경찰 관련 연구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11) 박치성·정지원, 앞의 논문, 80쪽.

12) 최응렬·윤병훈·주성빈,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경찰·범죄학 연구경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한국해양경찰학회보와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 세미나 자료집에 게재된 논문 65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실증연구의 경우 해양경찰을 주요 키워드로 하여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이나 직무스트레스 연구주제로 연결중심성이 많이 나타났으며, 문헌연구의 경우 일본, 중국, 중국어언 등과 연결중심성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실증연구의 경우 조직구성원의 효과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고, 문헌연구의 경우 주로 불법조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평가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¹³⁾ 정병수와 동료들(2014)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위기관리논집에 게재된 경찰학 관련 논문 총 70편을 대상으로 시기별(2005~2009년, 2010~2014년)로 경찰학 분야의 연구경향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2005~2009년에는 테러를 주요 키워드로 하여 사이버, 위기관리 등의 순으로 연결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2014년에는 2005~2009년과 마찬가지로 테러를 주요 키워드로 하여 경찰, 예방, 범죄 등과 연결 중심성이 강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위기관리분야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테러연구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경찰학 분야에 있어 연구테마의 확장성을 주장하였다.¹⁴⁾ 또한 정병수와 김양현(2014)은 1999년부터 2014년(제16권 제1호)까지 한국경찰학회보에 게재된 논문 426편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경찰 관련 연구경향을 살펴봐왔는데, 연구결과, 한국경찰학회보 초기(1999년~2006년)에는 경찰학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팽

향 분석: 2003년~2013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연구, 제3권, 제1호, 2013, 31-51쪽.

13) 이대성, “한국 해양경찰 관련 연구경향분석: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4권 제2호, 2014, 75-86쪽.

14) 정병수·정용상·류상일, “경찰학 분야 연구경향 분석: 한국위기관리논집을 중심으로”, Crisisonomy, Vol.10, No.11, 2014, pp. 177-190.

창하는 시기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는 다양한 통계기법을 활용한 관계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주요 키워드 간 연결중심성을 확인한 결과에서도 초기(1999년~2006년)보다 2007년부터 2014년 구간까지 경찰을 주요 키워드로 하여 민간경비나 해양경찰, 그리고 조직, 신뢰, 인식 등 다양한 주제어들과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¹⁵⁾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범죄심리연구에 게재된 논문 223편을 시기별(2005~2007년, 2008~2010년, 2011~2014년)로 구분하여 국내 범죄심리학의 연구경향을 살펴본 정병수와 이재영(2015)은 2005~2007년에는 주로 심리를 키워드로 하여 성폭력과 성범죄,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연구키워드가 연결중심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면, 2008~2010년과 2011~2014년은 범죄를 주요 키워드로 하여 폭력, 비행, 범죄자, 성폭력, 학교폭력, 아동 등 보다 다양한 키워드들과 연결중심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이들 연구결과는 경찰 관련 연구주제가 조직 및 인사 관련 연구와 함께 특정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정책으로 연구주제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범죄심리학의 연구주제도 성폭력과 성범죄 이외에도 아동, 학교폭력 등으로 연구주제가 보다 다양하게 확대되어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국내 2000년대 초반까지 관련 경찰 및 범죄 연구분야의 전공 학자수가 증가됨과 동시에 관련 학술단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한 범죄문제에 대한 정책개발 및 평가에 대한 필요성의 증가도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된다.

15) 정병수·김양현, “한국경찰학회보 연구경향 분석 I”, 한국경찰학회보, 제16권 제3호, 2014, 187-215쪽.

16) 정병수·이재영,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한국범죄심리연구」 연구경향 분석”,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1권, 제1호, 2015, 147-168쪽.

2) 테러 및 산업보안 관련 연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테러 관련 연구경향은 경찰이나 범죄 관련 분야의 연구경향에 비해 다수 진행되어왔다. 김태진과 윤병훈(2013)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테러학회보에 게재된 논문 78편을 분석 대상으로 테러 관련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테러를 주요 키워드로 하여, 범죄, 테러방지법, 뉴테러리즘, 사이버테러, 테러리스트, 대량살상무기 등과 연결중앙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테러 관련 연구경향에 있어 테러방지법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테러의 새로운 경향인 사이버테러와 뉴테러리즘 등이 주요 연구경향을 다뤄졌다는 점에서 테러와 관련된 국내 연구동향이 매우 시의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¹⁷⁾ 이대성과 류상일(2014)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정보원에서 발행하는 대테러정책 연구논총에 게재된 논문 80편을 각 연도별로 연구경향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각 연도별로 주제는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하었다. 그러나, 2011년의 경우 자생테러라는 용어의 빈도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테러와 관련된 국제정세에 부합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었다.¹⁸⁾ 또한 이대성과 김상원(2014)은 198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테러관련 석·박사 학위 논문 464편을 대상으로 테러 분야의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공통적으로는 테러, 테러리즘, 대응, 대응방안, 국제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80년대의 경우 북한이 주요 키워

17) 김태진·윤병훈, 2013,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테러관련 연구 경향”, 한국테러학회보, 제6권, 제2호, 22-43쪽.

18) 이대성·류상일, “대(對)테러리즘 분야 연구경향 분석: 국가정보원 테러정보 통합센터 대테러정책 연구논총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4호, 2014, 53-69쪽.

드로, 90년대의 경우 한국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2000년대는 요인테러, 경호라는 용어가 언급되고, 9·11테러 이후에는 테러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사이버테러나 뉴테러리즘과 같은 주제어와 연결중심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⁹⁾ 이대성과 동료들(2014)은 1981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테러 관련 분야의 논문과 한국테러학회, 치안본부, 경찰청, 국가정보원에서 각각 발행된 테러 관련 학술지 논문 1,110편을 대상으로 연구경향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2000년을 기점으로 이전 연구는 대(對)테러활동에 있어 사후진압적 측면에, 2000년도 이후에는 사전예방적 측면의 연구가 주를 이뤘다는 점을 연구결과로 제시하였다.²⁰⁾ 보다 최근에 윤병훈과 공태명(2017)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을 이용하여 해상테러 관련 논문 118편을 대상으로 해상테러의 연구경향을 확인하였는데 분석결과, 해적을 주요 키워드로 하여 해상테러, 테러, 해상안전, 유엔해양법협약, 해상운동 등의 주요 핵심어가 연결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해상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대테러작전 및 요원들의 교육훈련 등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며, 해상테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²¹⁾ 이 외에도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산업보안의 연구경향을 살펴본 정병수와 동료들(2012)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 게재된 산업보안 관련 논문 50편을 대상으로 산업보안의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보안정책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고, 산업기술, 기업, 유출

19) 이대성·김상원, “대(對)테러리즘 분야 연구경향 분석: 국회도서관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14, 127-143쪽.

20) 이대성·김상원·류상일,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본 대(對)테러리즘 연구경향”,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12호, 2014, 129-146쪽.

21) 윤병훈·공태명,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해상테러의 연구동향 및 시사점”,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6권, 제2호, 2017, 75-96쪽.

방지, 산업스파이 등이 높은 연결중심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보안 분야에 있어 보안정책이 중요하고,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요한 연구 경향인 것을 보여주었다.²²⁾

이상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바탕으로 경찰, 범죄, 그리고 테러 등 치안과 관련된 연구분야 및 연구방법의 경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학문영역을 분석함에 있어 분석대상은 연구분야에 있어 대표성을 지니는 관련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를 임의로 선정하여 특정 기간 내 게재된 연구논문의 주제어를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논문의 주제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유사어나 그 의미가 동일한 경우는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동일시하여 코딩하였다.²³⁾ 셋째, 관련된 주제어를 주로 연결중심성²⁴⁾을 토대로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출현 빈도가 잦은 단어들과 관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연결중심성을 Netminer나 Ucinet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단어간 구조적 관계를 시각화하였다. 이러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경찰, 범죄, 그리고 테러 및 산업보안 등의 네트워크 분석결과는 치안정책 및 치안행정의 연구경향과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최근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떠한 연구주제의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보여주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연구키워드 검색이나 특정 학회에서 발간한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텍스

22) 정병수·류상일·김희수, “산업보안의 연구경향 분석: 학술연구정보서비스(2000~2011년)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제9권, 제2호, 2012, 195-215쪽.

23) 예컨대, 경찰관과 경찰공무원, 테러와 테러리즘, 직무만족과 만족 등을 들 수 있다.

24)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하나의 단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단어의 수를 계량화하여 핵심 단어를 도출해 내고, 이를 통해 특정 학문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기점으로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연구경향을 도출해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김용학, 2003; 광기영, 2014).

트 네트워크 분석이 실시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치안정책의 대표적인 연구기관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치안정책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특히 주제어(keyword) 만을 추출하여 중심성이 높은 단어들을 중심으로 연결된 주제어 간의 네트워크(관계)를 시각화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이를 통해 치안정책연구의 최근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치안정책연구의 시사점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Ⅲ. 조사설계

1. 데이터

이 연구에서 데이터는 2009년부터 2017년 제31권 제1호(2017년 3월 발행)까지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행된 치안정책연구 학술지 발간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 상에는 2004년 11월 9일을 등록시점으로 하여 총 425편의 논문이 검색되지만,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홈페이지(<https://www.kci.go.kr/>)를 기준으로 하여 총 175편을 분석자료로 선정하였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09년 제23권의 10편의 논문을 시작으로, 2010년 21편, 2011년 17편, 2012년 21편, 2013년 16편, 2014년 19편, 2015년 29편, 2016년 32편, 2017년 제31권 제1호 10편을 선정하였다.

〈표 1〉 분석자료

(단위: 편)

연 도	게재 논문 편수	연 도	게재 논문 편수
2009년(제23권) ²⁵⁾	10	2014년(제28권 제1호)	9
2010년(제24권 제1호)	10	2014년(제28권 제2호)	10
2010년(제24권 제2호)	11	2015년(제29권 제1호)	10
2011년(제25권 제1호)	6	2015년(제29권 제2호)	10
2011년(제25권 제2호)	11	2015년(제29권 제3호)	9
2012년(제26권 제1호)	10	2016년(제30권 제1호)	10
2012년(제26권 제2호)	11	2016년(제30권 제2호)	10
2013년(제27권 제1호)	7	2016년(제30권 제3호)	12
2013년(제27권 제2호)	9	2017년(제31권 제1호)	10

총 분석자료 : 175

물론,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논문들의 연구경향을 모두 살펴보는 것도 의미는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분석시점을 2009년부터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치안정책연구 학술지가 2009년 1월에 등재 후보학술지(2016년 1월 1일에는 등재학술지 선정)로 선정되어 치안정책 연구 학술지의 연구경향을 살펴봄에 있어 보다 학술적이고 객관적일 것이라 판단을 하였다.

25)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홈페이지(<https://www.kci.go.kr/>)에서 2009년 제23권에 대한 세부 정보는 제시되고 있지 않아, 별도로 제O호 표시는 제시하지 않았다.

2. 분석도구 및 방법

1) 분석도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실행하기 위해 KrKwic 프로그램, Ucinet 및 NetDraw 프로그램을 분석도구로 활용하였다. Krkwic은 박한우와 Loet Leydesdorff(2004)에 의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KrKwic, KrTitle, KrText 등 3개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하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서 핵심어를 파악하는 프로그램으로 분석대상이 된 메시지 속에 사용된 모든 단어들을 찾아 확인하고, 각 단어의 활용빈도를 계산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²⁶⁾ 따라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 자주 빈출되는 핵심 주제어를 선정하는 1차적 분석을 위해 Krkwic 프로그램을 분석도구로 활용하였다. Ucinet 프로그램은 Netminer 프로그램과 함께 사회 네트워크 분석 및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프로그램으로 이용 접근성 측면을 고려하여 이 연구의 분석도구로 선정하였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Gephi, Pajek, NodeXL 등 다양하나, 이 연구에서는 Ucinet 내에 연동되어 있는 시각화 프로그램으로 NetDraw를 분석도구로 선정하였다.

2) 분석방법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

26) 박한우·Loet Leydesdorff, “한국어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6, No.5, 2004, p. 1378.

되었다. 첫째, 치안정책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주제어를 선정하여 KrKwic 프로그램을 통해 Text.txt 파일을 생성하였다. 이후 KrTitle을 통해 wrdfrq.txt 파일과 동시에 생성되는 coocc.dbf 파일을 바탕으로 ‘단어 * 단어’의 공출현 매트릭스를 생성하였다. 둘째, 생성된 공출현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Ucinet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결 중심성을 확인하였다. 연결중심성을 바탕으로 치안정책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의 핵심 주제어와 다른 주제어간 관계를 확인하고 NetDraw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시각화하는 절차로 수행되었다.

IV. 분석결과

1. 치안정책연구의 연구주제어 빈도분석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치안정책연구의 연구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주제어 빈도 분석을 Krkwic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표 2〉 참조). 먼저, Krkwic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주제어 분석결과 1회 출현한 연구주제어를 포함하면 총 779개의 연구주제어가 제시되었다. 이 중 추후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3회 이상 자주 제시된 연구주제어로 빈도분석 결과를 한정하였다. 가장 많이 출현한 연구주제어는 ‘경찰’로 총 11회 출현되었다. 다음으로 ‘CPTED’,²⁷⁾ ‘경찰공무원’, ‘북한’, ‘수사’²⁸⁾라는 연구주제어는 6회 출현하였다. 이 외에도 ‘경찰활동’, ‘민간경비’,

27) 연구주제어 빈도 분석을 위한 사전 절차로 코딩정제를 실시하는데,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는 연구주제어는 모두 ‘CPTED’로 통일하였다.

28) ‘범죄수사’라는 연구주제어는 모두 ‘수사’로 통일하였다.

'범죄예방'이 5회,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민간조사', '민간조사관', '보안경찰', '사이버범죄', '수사권', '인권', '조직성과'가 4회, '검찰', '교통문화', '교통사고', '디지털증거', '범죄', '산업스파이', '스토킹', '인권침해', '자치경찰', '적정업무량', '지역사회경찰활동', '지역치안협의회', '통일', '행정경찰', 'DNA데이터베이스'가 3회 출현하였다. 이는 치안정책연구에 게재된 연구의 경향이 주로 경찰을 중심으로 범죄예방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민간경비, 신종 범죄대응, 그리고, 인권보호와 관련된 연구들이 주로 연구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치안정책 개발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다소 부족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제까지 치안정책연구의 전통적인 경찰 및 치안정책 관련 연구경향은 향후 경찰기획, 사이버안전, 테러, 외사, 경무기획, 정보화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치안정책 연구로 확대 및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었다.

〈표 2〉 연구주제어 빈도 분석 결과

연구주제어	빈도수	연구주제어	빈도수
경찰	11	조직성과	4
CPTED	6	검찰	3
경찰공무원	6	교통문화	3
북한	6	교통사고	3
수사	6	디지털증거	3
경찰활동	5	범죄	3
민간경비	5	산업스파이	3
범죄예방	5	스토킹	3
경비업법	4	인권침해	3
경찰관직무집행법	4	자치경찰	3

연구주제어	빈도수	연구주제어	빈도수
민간조사	4	적정업무량	3
민간조사관	4	지역사회경찰활동	3
보안경찰	4	지역치안협의회	3
사이버범죄	4	통일	3
수사권	4	행정경찰	3
인권	4	DNA데이터베이스	3

2. 치안정책연구의 연구주제어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치안정책연구의 연구주제어 연결중심성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표 3>은 연결중심성의 degree가 1.0 미만인 연구주제어와의 관계성이 1 미만을 보여주는데, 우선 '지역사회경찰활동'이라는 연구주제어의 연결중심성은 4.013%(nrmdegree=4.013)로 총 32개의 연구주제어 중 약 1개의 연구주제어와 관계(degree=0.951)를 맺고 있다. '민간조사'라는 연구주제어의 연결중심성은 3.472% (nrmdegree=3.472), '민간조사관'이라는 연구주제어의 연결중심성은 3.443%(nrmdegree=3.443), '행정경찰'이라는 연구주제어의 연결중심성은 3.362%(nrmdegree=3.362)로 각각 약 총 32개의 연구주제어 중 약 1개의 연구주제어와 관계성('민간조사'의 degree=0.942 / '민간조사관'의 degree=0.932 / '행정경찰'의 degree=0.908)을 지니고 있다. 이외에도 자치경찰, 경찰관직무집행법, 사이버범죄, 수사권, 스토킹, CPTED, 민간경비, 지역치안협의회, 교통사고, 조직성과, 검찰, 경비업법, 경찰공무원, 적정업무량, 산업스파이, 디지털 증거, 교통문화, DNA데이터베이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degree 1.0 이하)

연구주제어	degree	nrmdegree	share
지역사회경찰활동	0.954	4,013	0.034
민간조사	0.942	3,472	0.030
민간조사관	0.932	3,443	0.029
행정경찰	0.928	3,362	0.029
자치경찰	0.908	3,350	0.028
경찰관직무집행법	0.864	3,278	0.028
사이버범죄	0.795	3,089	0.026
수사권	0.740	2,998	0.025
스토킹	0.675	2,436	0.021
CPTED	0.590	2,128	0.018
민간경비	0.546	1,969	0.017
지역치안협의회	0.519	1,935	0.016
교통사고	0.504	1,871	0.016
조직성과	0.465	1,818	0.015
검찰	0.434	1,758	0.015
경비업법	0.333	1,519	0.013
경찰공무원	0.276	1,203	0.010
적정업무량	0.236	0,995	0.008
산업스파이	0.185	0,850	0.007
디지털증거	0.107	0,387	0.003
교통문화	0	0	0
DNA데이터베이스	0	0	0

〈표 4〉는 연결중심성의 degree가 1.0 이상인 연구주제어와의 관계성이 1 이상을 보여준다. 우선 '경찰'이라는 연구주제어의 연결중심성은 11.516% (nrmdegree=11.516)로 총 32개의 연구주제어 중 약 3개의 연구주제어와 관계(degree=3.191)를 맺고 있다. '범죄'라는 연구주제어의 연결중심성은 9.609%(nrmdegree=9.609), '수사'라는 연구주제어의 연결중심성은

8.920%(nrmdegree=8.920), '북한'이라는 연구주제어의 연결중심성은 7.939%(nrmdegree=7.939)로 각각 총 32개의 연구주제어 중 약 2개의 연구주제어와 관계성('범죄'의 degree=2.663 / '수사'의 degree= 2.288 / '북한'의 degree=2.082)을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 '보안경찰'이라는 연구주제어의 연결중심성은 6.702%(nrmdegree=6.702), '경찰활동'이라는 연구주제어의 연결중심성은 5.992%(nrmdegree=5.992), '인권침해'라는 연구주제어의 연결중심성은 5.061%(nrmdegree=5.061), '통일'이라는 연구주제어의 연결중심성은 4.421%(nrmdegree=4.421), '범죄예방'이라는 연구주제어의 연결중심성은 4.113%(nrmdegree=4.113)로 각각 총 32개의 연구주제어 중 약 1개의 연구주제어와 관계('보안경찰'의 degree=1.716 / '경찰활동'의 degree=1.661 / '인권침해'의 degree=1.402 / '통일'의 degree= 1.225 / '범죄예방'의 degree=1.140)를 지니고 있다. 또한, 연구주제어의 계량화된 수치를 바탕으로 연결중심성을 시각화하면 <그림 1>과 같다.

<표 4>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degree 1.0 이상)

연구주제어	degree	nrmdegree	share
경찰	3.191	11.516	0.098
범죄	2.663	9.609	0.082
수사	2.288	8.920	0.076
북한	2.082	7.939	0.067
인권	2.049	7.512	0.064
보안경찰	1.716	6.702	0.057
경찰활동	1.661	5.992	0.051
인권침해	1.402	5.061	0.043
통일	1.225	4.421	0.038
범죄예방	1.140	4.113	0.035

주요한 키워드(예, 사이버테러, 제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신종 사이버범죄 등)와 연결될 필요가 있다. 물론 전통적인 경찰학 및 범죄학, 그리고 정책학 관련 연구경향과 연구주제는 계속해서 연구가 필요하며, 경찰행정 및 경찰정책, 그리고 치안정책의 평가와 개발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치안환경과 다양한 신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주제가 보다 개발되면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경찰의 치안정책에도 반영되어 평가 및 수정이 이루어지면서 치안정책의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2009년부터 2017년 제31권 제1호까지 게재된 치안정책연구 175편의 논문의 연구경향을 살펴보고 향후 치안정책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결과, 치안정책연구의 연구경향은 첫째, 연구주제의 빈도분석 결과, ‘경찰’, ‘CPTED’, ‘경찰공무원’, ‘복합’, ‘수사’라는 연구주제어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경찰활동’, ‘민간경비’, ‘범죄예방’, 그리고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민간조사’, ‘보안경찰’, ‘사이버범죄’, ‘수사권’, ‘인권’, ‘조직성과’ 등의 연구주제어가 발견되었다. 이외에도 ‘검찰’, ‘교통문화’, ‘교통사고’, ‘디지털증거’, ‘범죄’, ‘산업스파이’, ‘스토킹’, ‘인권침해’, ‘자치경찰’, ‘적정업무량’, ‘지역사회경찰활동’, ‘지역치안협의회’, ‘통일’, ‘행정경찰’, ‘DNA데이터베이스’가 3회 나타났다. 둘째, 연구주제어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경찰’을 중심으로 연결중심성은 ‘범죄’,

'수사', '북한', '인권', '보안경찰', '경찰활동', '인권침해', '통일', '범죄예방' 등이 주요 연구주제어가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연구주제어 중 연결중심성이 높은 연구주제어는 '범죄', '수사', '북한'이라는 연구주제가 각각 총 32개의 연구주제어 중 약 2개의 연구주제어와 관계성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보안경찰', '경찰활동', '인권침해', '통일', '범죄예방' 연구주제어의 연결중심성은 각각 총 32개의 연구주제어 중 약 1개의 연구주제어와 관계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안정책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경향을 분석한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연구경향과는 차이점을 보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경찰관련 분야의 연구경향이 주로 행정학 분야의 연구주제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범죄관련 분야의 경우에는 주로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나 범죄두려움에 초점을 맞춘 연구경향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치안정책연구에서의 연구경향의 중심성을 보면, 수사, 북한, 인권, 그리고 보안경찰이나 인권 등 비교적 다양한 연구주제어와 연결을 맺고 있었다. 이는 치안정책연구의 연구경향이 다른 학술지보다는 비교적 넓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변화하는 치안환경과 다양한 신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주제가 보다 개발되면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치안정책연구의 연구경향과 관련해서 향후 치안정책연구 학술지의 학술적·정책적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이후 발간된 치안정책연구의 전통적인 경찰 및 치안정책 관련 주요 연구경향은 향후 경찰기획, 사이버안전, 테러, 외사, 경무기획, 정보화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치안정책 연구로 확대 및 확장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급변하는 치안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경찰의 적절한 치안정책 개발을 위해서 향후에는 이를 대변

할 수 있는 주요한 키워드(예, 사이버테러, 제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신종 사이버범죄 등)의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찰의 치안정책에도 반영되어 평가 및 수정이 이루어지면서 치안정책 개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치안정책연구를 발간하는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경찰학 및 범죄학, 그리고 정책학 관련 기타 다른 연구학술지와 차별성을 통한 학문적·정책적 기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우선, 연 4회 발간되는 치안정책연구 중 연 1-2회 정도는 특정 연구주제에 대한 특별호를 제작해서 발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이는 외국의 주요 사회과학(social science), 범죄학(criminology) 및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관련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테러, 사이버범죄 등 비교적 최근에 이슈화되는 연구주제를 상정하고 이러한 연구주제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분야 저명학자의 연구를 독려하면서 특정주제의 연구결과만을 종합한 특별호를 발간하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 둘째,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보유한 다양한 치안정책 관련 데이터를 관련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치안정책 평가에 대한 연구(research for policy evaluation)를 통한 증거에 입각한 정책개발(evidence-based policy)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렇게 기획된 연구결과물은 치안정책연구에 투고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실제로 우리나라 치안정책의 개발 및 평가에 활용하도록 하면 치안정책연구의 학술적·정책적 기여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2009년부터 2017년 제31권 제1호(2017년 3월 발행)까지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행된 치안정책연구 학술지 게재논문 175편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논문의 주제어를 선정하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제어의 관계성을 분석하여 최근 연구경향을 살펴보고 관련 선

행연구의 검토를 통해서 치안정책연구가 발간한 학술논문의 경향성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다. 또한 향후 치안정책연구 및 치안정책연구 학술지 발간을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으로 그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 연구는 치안정책연구에 게재된 학술논문만을 그 분석대상으로 하였다는 하는 점이다. 즉 이는 이 연구에서 새로운 치안환경에 대비한 연구아이디어가 반영된 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논문심사 과정에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연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을 수도 있다. 둘째, 주제어를 통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 가지는 기본적인 한계로서 실제로 어떠한 연구자에 의해서, 어떠한 연구방향성과 연구분석방법으로, 어떠한 주제의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핵심키워드를 선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객관적인 방법이 적용되지 못했다. 즉 실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식이 연구자의 자의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자칫 분석결과에 대한 왜곡이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핵심 키워드를 선정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오류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사전 의견교류가 필요한 것이다. 향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경찰 및 범죄, 그리고 치안정책의 우수한 학술적 결과물이 치안정책연구 학술지에 게재되어 학술지의 학술적·정책적 기여도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논문 접수 : 2017. 8. 20, 심사 개시 : 2017. 8. 23, 게재 확정 : 2017. 9. 22〉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곽기영, 소셜네트워크분석, 2014, 서울: 도서출판 청람.

김용학, 사회연결망분석, 2003, 서울: 박영사.

2. 논문

고득환·박세훈,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NA)을 통한 한국 비교교육 연구
경향 분석”, 교육종합연구, 제15권, 제1호, 2017, 127-152쪽.

권창국·김연수, “경찰활동과 과학기술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찰 R&D기관
도입을 위한 환경분석”, 한국경찰학회보, 제15권, 제1호, 2013, 3-39쪽.

김준현,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결과 해석에 관한 소고: 행정학 분야 연구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4호, 2015, 247-280쪽.

김태진·윤병훈, 2013,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테러관련 연구 경향”,
한국테러학회보, 제6권, 제2호, 22-43쪽.

박치성·정지원,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socio- cognitive
network) 분석을 통한 정책이해관계자 간 공유된 의미 파악 사례”.
정부학연구, 제19권, 제2호, 2013, 73-108쪽.

박한우·Loet Leydesdorff, “한국어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6, No.5, 2004, pp. 1377-1387.

성용은·윤병훈, “한국의 초국가적 범죄위협과 정보주도형 경찰활동(Intelligence-
Led Policing)의 역할”. 한국범죄정보연구, 제1권, 제1호, 2015, 19-35쪽.

- 윤병훈 · 공태명,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해상테러의 연구동향 및 시사점”,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6권, 제2호, 2017, 75-96쪽.
- 윤병훈 · 이창한,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경찰활동의 모색: SMART Policing의 활용사례 및 적용방안”, 경찰학논총, 제8권, 제2호, 2013, 415-438쪽.
- 이대성, “한국 해양경찰 관련 연구경향분석: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4권 제2호, 2014, 75-86쪽.
- 이대성 · 김상원, “대(對)테러리즘 분야 연구경향 분석: 국회도서관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14, 127-143쪽.
- 이대성 · 김상원 · 류상일,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본 대(對)테러리즘 연구경향”,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12호, 2014, 129-146쪽.
- 이대성 · 류상일, “대(對)테러리즘 분야 연구경향 분석: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정책 연구논총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4호, 2014, 53-69쪽.
- 정병수 · 김양현, “한국경찰학회보 연구경향 분석 I”, 한국경찰학회보, 제16권 제3호, 2014, 187-215쪽.
- 정병수 · 류상일 · 김화수, “산업보안의 연구경향 분석: 학술연구정보서비스(2000~2011년)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제9권, 제2호, 2012, 195-215쪽.
- 정병수 · 이재영,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한국범죄심리연구」 연구경향 분석”,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1권, 제1호, 2015, 147-168쪽.
- 정병수 · 정육상 · 류상일, “경찰학 분야 연구경향 분석: 한국위기관리논집을 중심으로”, Crisisonomy, Vol.10, No.11, 2014, pp. 177-190.
- 최응렬 · 윤병훈 · 주성빈,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경찰 · 범죄학 연구경향 분석: 2003년~2013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연구, 제3권, 제1호, 2013, 31-51쪽.

3. 기타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http://www.psi.go.kr/>)

II. 외국 문헌

1. 단행본

Knoke, D. & Yang, S. "Social network analysis. Los Angeles", *London, New Dehli, Singa-pore*: Sage. 2008.

2. 논문

Paranyushkin, D. "Text network analysis. In Conférence du Performing Arts Forum", <http://noduslabs.com/research/pathways-meaning-circulation/>, 2010.

_____, "Visualization of text's polysingularity using network analysis", *Prototype Letters*, Vol. 2, No.3, 2011, pp. 256-278.

< ABSTRACT >

Research Trends and Implications of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by Using Text Network Analysis

Youn, Byoung-Hoon · Sung, Yong-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cent research trends of policing policy research by analyzing the relation between related words based on the core subject words of the papers published in 'Journal of Police Policies' and discuss the implications of future policing policy research. This research was conducted from 2009 to 2017, Volume 31, Issue 1 (issued in March 2017), and analyzed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published by the Police Science Institut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tendency of study of police policy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the most frequent research topics were 'Police', 'CPTED', 'Police officer', 'North Korea', 'Investigation'; Second, the results of the linkage analysis of the research theme 'Police' showed that the centrality of connection is 'crime', 'investigation', 'North Korea', 'human rights', 'security police', 'police activities', 'Unification', "crime prevention" and so on; Third, the main topic of the research is 'crime', 'investigation', and 'North Korea', which are related to the two main research topic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esearchers suggested that: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expand the research trend of police policy research into police planning, cyber security, terrorism, foreign affairs,

police planning, and information security; Second, more research is needed to study the major keywords (e.g., cyber terrorism,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ig data, new cybercrime, etc.) that can represent changes in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And that it should be of practical assistance in the development of police policies. Last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the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 Key Words : Research Trends, Social Network Analysis, Text Network Analysis, Police Science Institute,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